

생생한 사회·생활상... 지역史 살찌울 중요 사료

호남의 기록문화유산

④ 일기·고문서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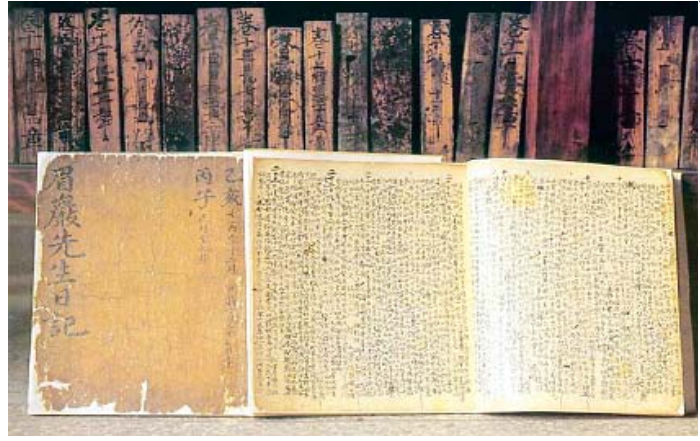
화순군 이양면에 살았던 사승 양주남(四松 梁柱南 1610~1656)은 관직인이 없었다. 늙어서도 과거 공부를 꾸준히 했지만 늘 전해지는 건 낙방 소식.

1645년의 어느날도 그러했다. 이번에도 또 다시 고배를 든 그는 불어회에 술 한잔을 기울이며 낙방의 슬픔을 달랠다. 300년도 더 넘은 옛날, 양주남이 불어회에 위로주를 마셨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 화순 쌍봉사 지역을 배경으로 그가 1650년부터 1655년까지 썼던 생활일기 '사승일기'에 자세히 적혀 있기에 가능했다.

△1654년 8월12일=송사 조카 형제와 서수문 밖으로 가서 정감찰을 보고 집에서 밥을 먹은 후 조카들과 노랑으로 가서 고감찰 집에서 방을 기다렸다. 오후에 이문중을 방문하고 방목을 보았다. 우리들은 낙방하고 오직 수재 문세회의 이름이 있었다. 호안군이 술을 사서 나를 위로했는데 바로 문중의 장인이다. 이날 저녁 북사동 윤 조카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김중원이 먼저 도착했다.
△1654년 8월15일=머물렀다. 종원이 이웃에 천연두 환자가 있다는 것을 듣고 낭패라 여기고 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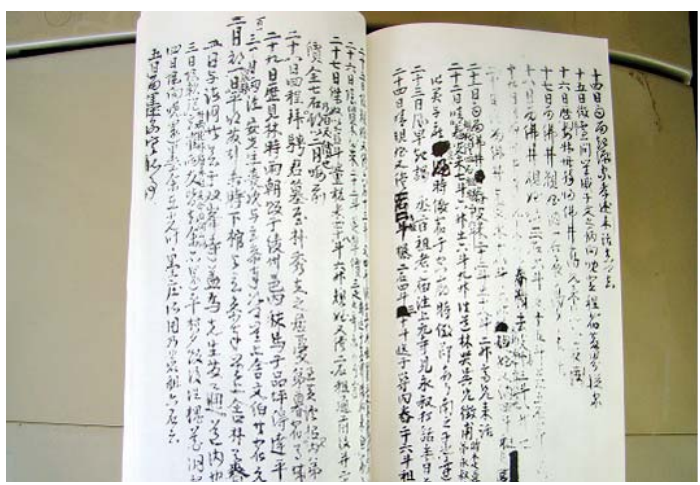
유회춘의 '미암일기'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문서다. '미암일기'를 현대적으로 풀어쓴 정창곤의 '출로 벼슬하다 그대를 생각하노라'.



양주남의 '사승일기'

살피기 위해서 이러한 일기자료는 매우 긴요한 원형 자료이며, 이를 통해서 호남의 지역사도 훨씬 풍부하게 엮어낼 수 있다.

조선시대의 많은 선비들이 일기를 작성하여 일상의 기억장치로 뿐만 아니라 자기 점검과 반성의 기회로 삼아왔기 때문에



양주남의 '사승일기'

곳곳 산재 초고상태 일기 거의 파악 안돼

'미암일기' 선조실록 편찬때 사료로 활용

났다. 불어를 얻어가지고 온 민선이 말하길 "이것에는 술이 없을 수 없소이다."라고 했다. 나는 곧 술 한 병을 사와서 회를 떠서 대작했다.『사승일기』중 일부부분

일기에는 이외에도 과거 준비, 선물 목록, 병에 쓰인 약재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온다.

양주남은 학포 양평손(學圃 梁彭孫)의 현손으로 은봉 안방준(隱峰 安邦俊)의 문하생이다. 은봉이 60세 무렵 화순 쌍봉리에 은봉정사를 짓고 강학할 때 입문하였다. 그의 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이 지역에 기반을 둔 향촌 유학자들, 또는 친척과 노비들이며, 주 내용은 유림활동, 가정생활, 농촌경제, 과거시험 등과 관련되어 있다.

안동고(조선대 한국고전번역원센터 선임연구원) 씨는 "사승일기는 17세기 중반 호남지역의 사회상과 생활상의 한 단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언급했다.

일기류는 개인의 문집과 함께 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로 떠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유실의 위험도 크고, 그 가치도 또한 알려지지 않은 채 사장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역사

앞으로는 많은 일기자료가 쏟아져 나오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호남을 대표하는 일기라고 할 수 있는 '미암일기'(眉巖日記)는 1567년 미암 유회춘(1513~1577)이 해배되어 1577년 사망할 때까지 11년간 쓴 일기이다. 총 11책이 현존하는데, 조선시대 일기 가운데 가장 방대한 분량이다. 현재 일기와 목판은 전남 담양군 대덕면 모현관(慕賢館)에 보관되어 있으며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미암일기'는 유회춘이 중앙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겪었던 주요사건, 정국동향, 지방의 행정실태, 민생, 국방현황, 가족의 회노에라, 관혼상제, 교육관계, 학문연구, 후진양성 등 16세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풍속 등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선조실록' 편찬 당시 중요한 사료로 활용될 만큼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일기의 종류는 일상생활의 일기, 유배생활의 일기, 관직생활의 일기,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기행일기, 국난이 있을 때 의병활동을 기록한 '의소일기(義所日記)'나 '창의일기(倡義日記)' 등이 있다.

그중 호남지역에는 특히 의병활동을 한 경우가 많았기에 그와 관련된 일기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함께 호남지역 일기자료를 수집하고 해제를 해나가고 있다.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것을 이미지화해 제 제공할 계획이다.

김덕진(광주교육대)교수는 "가령, 호남을 의향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일반적으로 양적인 데에서 찾고 있지만 일기를 통해 내면적이고 실질적인 면을 찾아 제시한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콘텐츠화하면 훌륭한 문화자원이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 일기자료를 통해 일반인들은 호남인이 어떤 인성과 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왔으며, 주변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고 역할을 하며 살아갔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지역사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이 더 쉬워지고,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다양하게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글=노금선 ksrho3340@hanmail.net,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특별연구원

고문서

생각 없이 세태를 따라 살다가 불행 듯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다. 방황의 근원이 잡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과거로의 여행이 필요하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옛 사람들의 삶의 자취를 만날 수 있다. 이 때 우리는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의 고민은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쳤음을 알게 된다. 옛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경로가 있다. 고궁이나 박물관, 민속촌이나 고문헌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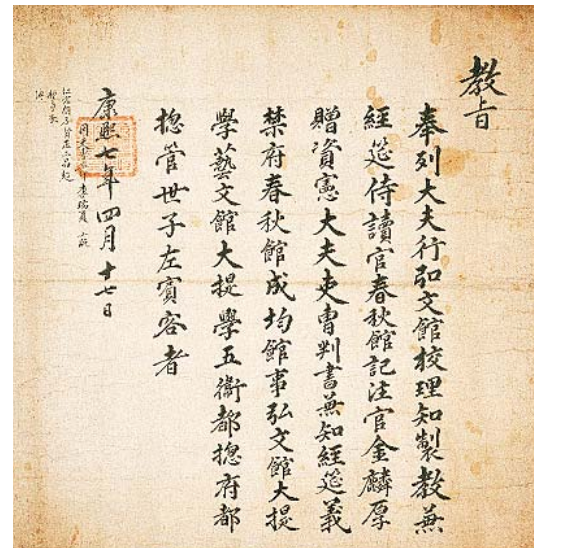
고문서는 문서가 그 사명을 다하여 이미 과거의 것으로 돼버린 것을 이르는데 "갑의 특정한 의지가 그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 음에 계 전달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고문서의 종류는 크게는 관문서와 사문서로 나뉘는데 관문서에는 교령류가 있고, 사문서에는 상소(上疏), 차자(劄子), 각종 매매문서, 통문(通文), 간찰 등이 있는데 간찰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느낌과 정서가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은 옛 편지라고 할 수 있다.

편지는 교통이 불편하고 통신수단이 미흡했던 시대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소통수단이었다. 편지는 친지 사이의 안부와 소식을 전하는 사교적 연결망이었고, 사우(師友)간에 학문적 논쟁을 통한 자기 성숙의 매개체이기도 했다.

옛 편지의 내용은 다양하다. 두세 줄로 된 짧막한 안부편지나 시시콜콜한 일상사에 관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도 있다. 편지쓰기는 조선



1668년 국왕이 김인후에 내린 추증교지

그밖에 전남대학교 도서관과 박물관이 5000 점, 전남 옥과미술관이 간찰 6천여 점, 순천대 박물관이 강운 최승효선생의 기증으로 3500여 점 등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문서는 우리 선조들의 생활양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과거의 생활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면 고문서를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 기록문화유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고문서들이 그동안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많은 분량이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양의 고문서가 남아 있다.

선비들 가치관 표현한 간찰·상소 등 다양

20만점중 편지가 절반... 400여종 DB화

시대 양반에게 일상적인 일이었다. 안부, 경조사, 물 을 일, 부탁할 일, 선물할 일 등이 있을 때 그들은 편지를 주고받았다.

자식의 과거합격을 위해 종이와 붓을 구하는 일, 노골적인 청탁이나 송사문제의 도움 요청, 유배인의 생활, 선물의 증여, 간찰의 유통, 세금을 둘러싼 갈등, 사상적 논쟁, 부모에 대한 효도, 친구들 간의 우정 등 선비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그 안에 풍부하게 담겨 있다. 옛 편지는 여타 고문서에 비해 내용 또한 역동적이다. 그것을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의 소통의식, 세계관, 가치관을 직접 살필 수 있다.

호남고문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고 2005년 문화재청의 일반 동산문화재 조사를 통해 고문서가 대대적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한국학자료센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대, 조선대, 목포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호남고문서를 수집 정리하여 약 7000 여 점을 DB화 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국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대 박물관과 순천대 박물관이 주축이 되어 호남지역 고문서 약 1만 8000여 점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데 호남기록문화유산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그 숫자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고문서는 총 20만여 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 간찰이 10만여 점 정도로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현재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작업의 일환으로 고문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00여 종의 고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했으며 앞으로 2단계 3년 동안 600여 종의 간찰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계획이다.

이 지역의 고문서 특히 간찰을 중심으로 발굴하여 이미지 파일의 만들고 해제를 해 '호남기록문화유산 사이트'를 통해 학습연구자나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이 지역 선비들의 옛 편지를 한번쯤 읽어보아보아 그들의 생각이 지금 나의 생각과 다르지 않고 그들의 고민이 지금 나의 고민과 많이 다르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www.honamculture.or.kr

／글=박해정 jang1hso@hanmail.net,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특별연구원

이 기사는 (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후원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단롭필로 라텍스 침대 150평
 세계최고 수면과학 단롭필로 Duniopillo
 고객님의 매트리스는 아래와 같습니까?
 머리 - 어깨 - 척추 - 엉덩이 - 허벅지 - 종아리 - 다리
 5% 15% 60% 15% 5%
 수면시 힘의 분포도

원목가구(종합) 100평
직수입 이태리가구 200평 1~3층

검색

쇼핑몰 www.hong79.com(홍친구닷컴)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장동도터리) **가구빌딩 450평 / 매트리스 체험관 오픈!** ☎1899-0240